

세계적 푸르른 양진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성리 상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10일 열린 2007 프로야구 KIA와 현대의 광주 개막전에서 팬들이 V10을 외치며 응원하고 있다. 왼쪽은 7회말 솔로홈런을 치고 3루를 돌며 김종윤 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이재주 선수. /위탁기자 jwji@kwangju.co.kr

이재주 빛바랜 '홈 개막포'

연장 10회 마무리 한기주 무너져...KIA, 현대에 1-4 패



‘특급 마무리’ 한기주(20·KIA)가 무너졌다. ‘신입 용병’세스 에서튼(31)은 한국무대 첫 공식 선발등판에서 뛰어난 제구력으로 합격점을 받았지만, 팀의 패배로 그 빛을 잃었다. 한기주는 10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2007 삼성 PAVV 프로야구 현대와의 홈경기에서 1-1로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던 연장 10회 마운드에 올라 4피안타, 3자책점을 내주며 1-4, 역전패를 허용했다. 10회 1사 후 신용운에게 마운드를 물려받은 한기주는 현대의 전준호와 서한규, 이택근에게 연속 안타를 허용, 1실점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기주는 계속된 2사 2, 3루에서 현대 이승용에게 좌익선상을 타고 흐르는 2타점 적시타를 내주며 결국 무너졌다. KIA 선발 에서튼은 6이닝 동안 탈삼진 5개를 잡아내며 4피안타, 1볼

넷, 무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2안타에 그친 타선의 침묵으로 승리투수가 되는데는 실패했다. KIA는 이날 패배로 2승 2패를 기록하게 됐다. 투구수 93개를 기록한 에서튼은 최고 구속이 139km에 불과했지만, 송곳같은 제구력과 재치넘치는 경기운영으로 올 시즌 큰 활약을 예고했다. 이날 2안타에 그친 KIA타선은 7회 이재주의 솔로포로 1점을 겨우 뽑아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7회 1사 후 타석에 들어선 이재주는 상대 선발 전준호의 2구째 135km짜리 투심패스트볼을 견어올려 좌중간을 가르는 1점 홈런(비거리 120m)을 터트렸다. 하지만 KIA ‘미들맨’ 신용운이 1-0으로 앞선 8회에 현대 용병 브룸바에게 빼어난 동점 홈런을 허용, 10회 연장 승부에 들어갔고, 승리의 여신은 현대의 손을 들어줬다. 평일임에도 1만2009명의 구름관중을 끌어모은 KIA는 광주구장에서 11~12일 현대와, 13~15일 삼성과 5연전을 벌인다. 한편 11일 KIA는 윤석민, 현대는 캘러웨이가 선발 등판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개막전 이모저모

정준하 “KIA 올 시즌 V10 이루세요”

○~식전행사로 열린 연예인 야구단 ‘恨’과 기자자동차 광주공방 야구팀인 ‘KIA모터스’의 초청경기에서 장단 10안타를 터트린 ‘恨’이 9-3으로 대승. 이날 ‘恨’에는 인기시트콤 MBC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식신(食神)’으로 열연중인 정준하를 비롯해 이휘재, 유태웅 등 인기 연예들이 대거 참여해 관중들에게 폭발적인 응원을 받기도.



10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2007 프로야구 KIA와 현대의 경기에 앞서 연예인 야구팀 ‘恨’의 정준하(오른쪽)와 이휘재가 ‘기아 모터스’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3루타를 포함 4타수 3안타를 터트린 주장 정준하는 “지난 2003년부터 5년째 광주 홈개막전 이벤트 경기에 참가했는데, 매년 KIA팬들이 열렬히 환영해 줘 너무 행복하다”며 “올 시즌은 KIA가 꼭 ‘V10’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선전을 당부.

이대진 “복귀 첫 승 감사” 딱 잔치

○~KIA선수단이 10일 현대전에서 앞서 팔떡, 호박떡 등 각종 떡이 한상 가득 차려진 식탁에서 푸짐한 ‘떡 잔치’를 벌여 관심이 집중. 한턱 쓴 주인공은 지난 7일 잠실 LG전에서 4년여만에 선발로 복귀해 6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된 ‘돌아온 에이스’ 이대진(33·KIA)이라는 것. 이대진은 “팀 동료들의 도움으로 정확히 3년 10개월 27일만에 선발승을 기록했다”면서 “그동안 믿어주고 격려해 준 구단의 관심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떡을 준비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

이벤트 다양·경품 풍성...팬들은 즐거워

○~KIA타이거즈는 홈 개막전을 맞아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 다양한 이벤트와 팬 서비스를 선사. 오후 4시부터 입장객을 대상으로 노란색 응원우산과 경기일정이 새겨진 볼펜 등 기념품을 나눠주는 한편 경기 후 추첨을 통해 40인치 TV 1대와 백화점 상품권 5매, 디지털카메라 3대, 차량용 MP3 5개, 캠피온 안마기 5개, 영화관람권 100매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 또 경기전 이벤트로 아크로바트팀 ‘피닉스’의 공연과 함께 통기타 그룹인 ‘프롤로그’의 초청공연을 펼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미현 ‘대회 2연패 꿈’

LPGA 진오픈 내일 개막

‘슈퍼파랑’ 김미현(30·KTF)이 우승에 목마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 군단’에 첫 우승컵을 안기겠다는 출사표를 냈다. 김미현은 12일 오후 미국 플로리다주 리유니언의 리유니언골프장(파72·6천505야드)에서 개막하는 LPGA 투어 진오픈에 출전한다. 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144명 가운데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는 37명에 이르지만 김미현이 주목받는 이유는 작년에 창설된 대회 초대 챔피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미현은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카리 웹(호주)을 2타차 공동 2위로 밀어내고 정상에 올랐다. LPGA 투어에서 최강자로 꼽히는 오초아, 웹, 소렌스탐을 따돌리며 차지한 우승컵이기에 타이틀 방어에 대한 자신감도 크다. 지난 겨울 훈련 때 스윙을 간결하게 다듬으면서 비거리 증대 효과도 본 김미현은 경기 도중 무의식적으로 예전 스윙이 나오는 바람에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미현은 “5월이 지나야 바뀐 스윙이 자리를 잡을 것 같고 6월이 되면 완벽해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타이를 방어도 걸려 있고 하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우승 욕심을 감추지 않았다.

양용은 ‘상금 사냥’ 시동

내일 PGA 헤리티지대회 출전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진출해 적응기를 갖고 있는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이 본격적인 상금 사냥에 시동을 건다. 양용은은 12일(한국시간) 오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튼헤드 아일랜드의 하버타운골프장(파71·6천973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버라이즌 헤리티지대회에 출전한다. 올해 4차례 PGA투어 대회에 나섰던 양용은은 기대만큼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다. 우선 갈수록 성적이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 대회였던 아센추어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는 1회전을 통과하지 못했고,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션에서는 공동75위, 그리고 CA챔피언십에서는 공동65위, 또 마스터스에서는 공동30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자넷 리·차유람 ‘포켓볼 퀸’ 향한 매서운 눈빛

‘검은 독거미’ 자넷 리(왼쪽)와 ‘얼짱 당구소녀’ 차유람의 눈빛이 매섭다. 이들은 10일 서울에서 열린 여자 포켓볼 대회인 ‘위윈스 월드 풀 컵 2007’에서 진정한 포켓볼 여제를 가리기 위해 샷 대결을 벌였다. 이날 차유람은 3위를 차지했고 자넷 리는 예선 탈락했다. /연합뉴스

고교생 황제경 ‘캘러웨이’ 우승

함평다이너스티서 열린 SBS 골프 최종

한국프로골프 SBS골프 캘러웨이투어에서 고교생 돌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10일 4계절 양진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CC(파72)에서 열린 캘러웨이투어 2차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황제경(17·김포 양곡고2년)이 이글 2개, 버디 3개, 보기 1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쳐 2라운드 합계 7언더파 137타로 우승했다.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인 황제경은 지난 3일 같은 골프장에서 열린 1차 대회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연승을 거둬 캘러웨이투어 최강자로 우뚝 섰다. 2개 대회에서 우승 상금 2천만원을 쓸쓸이했다. 특히 황제경은 부석찬(138타)에게 무려 6타나 뒤진 채 최종 라운드에서 나섰으나 후반에만 이글 2개를 잡아내며 1타차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는 뒷심을 발휘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골프채를 손에 쥔 황제경은 2004년 제주도지사배 아마추어선수권대회 ‘우승’, 2005년 에머슨퍼시픽중고대회 우승 등 화려한 아마추어 시절을 보낸 뒤 지난해 한국프로골프 3부투어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프로 자격을 땀다. 172cm, 70kg의 크지 않은 체격이지만 평균 297야드의 장타를 뿜어내는 황제경은 초등학교 때는 ‘엘레지’와 ‘입격정’ 등 TV 드라마에 출연하는 등 아역배우로 활약하기도 했다. 캘러웨이투어는 대회 출전 기회가 거의 없는 한국프로골프협회 후원인 세미 프로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연간 12개 대회를 치러 상금랭킹 1, 2위에게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캘러웨이상품 응시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해 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